

# 알록달록 '꽃 피는 담벼락 이야기' 함께해요

## 신천지자원봉사단 송하지부

자원봉사단과 주민들이 아파트 담벼락에 벽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신천지자원봉사단 송하지부(홍현수 지부장·이하 송하지부)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화순읍 오성 2차 아파트 벽에 올해로 11회차 되는 '꽃 피는 담벼락 이야기'를 진행했다. '자연아 푸르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봉사는 오래되고 퇴색된 아파트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며 진행됐다. 봉사자들은 벽화 그리기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변 쓰레기 줍기, 마을회관 청소 등 환경정화활동도 실시했다. 20일과 21일에는 화순군에서 지원한 벽돌과 꽃으로 화단을 정비했다. 주민들이 가꾼 구절초와 잘 어울리는 화단을 벽돌로 조성하고, 입금 빗갈 색을 입은 페타이어에 흙을 담아 꽃들을 심고 미니정원을 만들어 벽화 아래 비치했다. 24일에는 아파트 주민들과 송하지부 회원들, 벽화



봉사에 참여한 미술 협의회 관계자, 환경연대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이번 '담벼락 이야기'의 주제인 '희망의 별나무'를 들고 주민들의 응원 메시지와 사연들을 나눴다. 주민들은 "낯은 담벼락에 너무 멋진 그림을 그려줘 감동이다", "저녁에 이 길로 운동하는데 즐거울 것 같

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송하지부 관계자는 "담벼락 청소부터 벽화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달려가 기쁘게 봉사하고 지역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남대에 2천만원 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장학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사진> 전남대는 지난 22일 여수캠퍼스 수산해양관 1층 덕암홀에서 이정식 여수부총장, 서호영 수산해양대학장 등 보직자들과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국기게시상장성지정교육학과인 기관시스템공학 과, 해양생상관리학과, 해양경찰학과 학생 2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전달했다.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해운산업 발전 및 해양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해기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성정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활동가, 메이펠로우 2기 선정

박고형준(사진 오른쪽)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가 2기 메이펠로우로 선정됐다. 메이펠로우는 오월정신을 실천하는 청년활동가를 찾아 조명하고 그 뜻과 일을 사회적으로 후원하는 사업으로 (사)광주마당, (사)윤상원기념사업회, 518 NOW, 메이펠로우후원회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수여식은 27일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박고형준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20여 년동안 일관되게 청소년 인권운동과 교육운동을 해왔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싸워왔으며 교육청과 학교의 문제를 공론화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메이펠로우 2기로 선정됐다. 메이펠로우 선정위원회는 박고형준 활동가가 양심적 제보와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인권운동을 전개해 오는 등 권력감시 시민운동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점을 선정 취지로 밝혔다. 박고형준은 이날 수여식에서 "이번 선정을 계기



로 오월정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다.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과 교육의 변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마당과 메이펠로우후원회는 활동비 1200만원 지원과 함께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의 회원배가 운동에도 힘을 모아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29일 동구 인문대학 강연

클래식 전도사 조윤범(사진) 바이올리니스트가 동구 인문대학에서 강연한다. 이 씨는 29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청 8층강당에서 '푸치니 오페라의 세계'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현악 사중주단 '파르티트 엑스' 멤버로 활동중인 조씨는 예당아트TV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을 통해 인지도를 얻었으며 '나는 왜 감동하는가',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등을 펴냈다. 강연 전에는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박람회' 성료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 양미란)이 지난 25일까지 이틀간 목포자연사박물관 광장 일원에서 '2024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남도와 목포시가 주최하고 재단과 청소년행복성장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달려라 청소년, 펼쳐라 나의 꿈'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 24일에는 해군제3함대군악단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동아리의 어울림마당 공연, 연예인 하이킥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25일에는 꿈 발표대회, 호프판사 천종호 판사의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학교폭력의 이해와 예방' 강연 등이 이어졌다. 또 미래생명존, 진로드림존 등 4개 주제관, 140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감무쌍 용수정(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930 45 KBS 뉴스(광주)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30 살맛나는 오늘
11	05 동행(재)	00 함부로 대해줘(재)	15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30 토닥토닥 꼬모 새로운 탐험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집 금슬아지 50 다큐 인사이트 치킨 랍소디 선공개(재)	30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25 헬로키즈 동물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KBS 뉴스타임 15 거명술을 지켜라! 버디프렌즈(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본 좋은날	
4	00 사사건건	00 어린이 동물티비(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5 MBC 뉴스	00 캐리와 친구들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한국인의 밥상(재)	10 트로트 클래식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남도 탐구생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크740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용감무쌍 용수정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하이엔드 소금쟁이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10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	00 장안의 화제	20 특나 만면
11	30 다큐 인사이트 치킨 랍소디 선공개(재) 40 영상앨범 산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스모킹 건(재)	30 100분토론	
12	00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55 TV예술무대 통영국제음악제	20 도시락 스페셜

##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만국경문록	16:55 슈퍼왕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10 한글용사 아이어제
05:5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6:1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7:00 미스터리야	12:00 EBS 뉴스 12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7:15 빅 블루	12:10 귀한신 몸	19:20 고향민국
07:3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극한직업(재)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오지고 차이나 원나.쓰촨-아슬아슬, 절벽 위 사람들>
08:20 한글용사 아이어제	15:15 클래스 e	21:35 한국기행
08:35 슈퍼왕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15:55 불독스	<봄이 머물라 하네 2부 꽃길 따라 유목 여행>
08:50 도래미 프렌즈	16:10 당동맹 유치원(재)	21:55 건축탐구 - 집
09:00 뒤죽박죽섬의 빅토패밀리 쇼츠	16:30 패파 피그	22:45 EBS 다큐프라임
09:05 엄마 까투리	16:40 마사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자이언트 펭TV(재)	16:50 도래미 프렌즈 쇼츠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8일(음 4월 21일 壬辰) ☎ 010-9790-8237

<p><b>子</b></p> <p>36년생 역풍을 안고 있지만 머지않아 반전되리라. 48년생 무난한 하루가 진행될 것이다. 60년생 대처해 나가는 방식과 기교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72년생 식견이 풍부한 이와 함께 하자. 84년생 예의 주시하고 있어 야만 기만한 대응을 할 수 있다. 96년생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니 계획대로 행하라. 행운의 숫자 : 16, 72</p>	<p><b>午</b></p> <p>42년생 틀림없을 것이니 노파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54년생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66년생 철저한 준비와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78년생 문제를 제기할 만한 문제점이 보인다. 90년생 겸손 하다면 더 존귀한 위상에 놓인다. 02년생 인과 관계의 핵심적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70</p>
<p><b>丑</b></p> <p>37년생 가변적인 상황이니 탄력적으로 대처하자. 49년생 외형까지 관리한다면 효과가 배가된다. 61년생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도가 보인다. 73년생 개성을 살린다면 훨씬 더 가치가 빛나리라. 85년생 마음이 있다면다 말로 표현해야 효과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97년생 이면의 가치가 지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8, 71</p>	<p><b>未</b></p> <p>43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되어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55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로 기쁨이 넘치리라. 67년생 어 떠한 국경이라 해도 핵심적인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79년생 전혀 미래를 둘 필요가 없다. 91년생 어떠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 03년생 재판사가 지어지고 결과도 늦추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6, 64</p>
<p><b>寅</b></p> <p>38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50년생 관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62년생 한번 인연을 맺으면 이익은 없고 손해만 끼치게 될 것이니 상호 관련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74년생 제대로 파악해야 실수가 없으리라. 86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법이 아니라. 98년생 예상보다는 나은 결과이다. 행운의 숫자 : 31, 82</p>	<p><b>申</b></p> <p>44년생 어떠한 형태로든지 폐단으로 작용할 것이니 발본색원하라. 56년생 부정적인 요소가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면 그만이다. 68년생 무탈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80년생 실제적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는 자제함이 무방하다. 92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04년생 기만을 이뤄가는 면모이다. 행운의 숫자 : 35, 79</p>
<p><b>卯</b></p> <p>39년생 별로 상관될 일이 아니니 패만치 말고 처리하라. 51년생 상관된 반복보다 창의적인 시도가 낫다. 63년생 우선 급 조정을 잘하지 못한다면 액을 부른다. 75년생 두루 살펴가며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87년생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일취월장하리라. 99년생 제의를 받거나 첫 관연을 맺을 수다. 행운의 숫자 : 32, 73</p>	<p><b>酉</b></p> <p>45년생 끈질긴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57년생 머구름이 사라지면서 모습이 보이게 시작된다. 69년생 구상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현실화될 수 있겠다. 81년생 이제 헛수고는 그만 하는 것이 나으니 미련을 버려라. 93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마라. 05년생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이 확실하다. 행운의 숫자 : 18, 92</p>
<p><b>辰</b></p> <p>40년생 애매한 입장에서 취한 판단들은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52년생 실적이 없다면 끼여들 필요가 없다. 64년생 없어진 이후에 후회할 뭇수 소용이 있었는가? 76년생 생 조급한 더 노력한다면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 88년생 자세히 들여다보면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겠다. 00년생 순조로운 진행이 계속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3, 63</p>	<p><b>戌</b></p> <p>46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나 진행하기에는 이르다. 58년생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점을 노출시킬 것이다. 70년생 과격적인 것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82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다. 94년생 듣기는 하되 개인 할 필요는 없겠다. 06년생 매우 비수하여 혼동할 수도 있으니 앞뒤 분간을 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3, 61</p>
<p><b>巳</b></p> <p>41년생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53년생 배배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는 법이다. 65년생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77년생 무오해로 인한 구설수가 보이니 제반사에 삼가라. 89년생 무 의미하다면 굳이 애매할 필요는 없다. 01년생 조금씩이지만 기운은 발전적이고 세차도다. 행운의 숫자 : 24, 80</p>	<p><b>亥</b></p> <p>35년생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주변과 조화를 깨뜨릴 수도 있느니라. 47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낫다. 59년생 단일한 목적 아래 모여드는 이들이 있다. 71년생 구부러지는 것이 아예 부러지는 것 보다는 백년 낫다. 83년생 뜻밖으로 이중 또는 삼중의 행운이 따르리라. 95년생 신중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7, 89</p>